

친환경사찰은 바로 여기!

불교환경연대, 전국 모범사찰 28곳 뽑아 사례집 발간

어떤 사찰을 친환경적인 사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심과 산중에 있는 사찰 중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곳을 소개하는 자료집이 나왔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12월 7일 전국 28개 사찰의 모범적인 환경활동을 발굴한 '2005푸른사찰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찾아가는 길과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장건 연혁은 물론 활동사태가 자세하게 담겨있다.

또 친환경적 건축과 조경 △친환경적 사찰 살림살이 △환경관련 행사와 사업 개최 △사찰 주변 자연 생태계 보전 △사부대중 환경교육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전국의 생태 사찰도 소개하고 있다.

푸른사찰 사례집에서는 올해 5월부터 전나무숲길의 포장도로를 걷어내고 있는 평장 월정사와 지세를

거스르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자연 소재를 이용해 불사를 진행한 봉화 청량사를 친환경적 건축과 조경을 실천하는 대표적 사찰로 꼽았다.

또 포교사업부 부설로 식품회사를 만들어 운영비와 포교비로 사용하고 있는 공주 영평사와 문화강좌를 비롯한 외국인 포교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 부산 흥법사를 친환경적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곳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공양미 올리기 운동' 등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귀농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남원 실상사, '환경분할'을 지향하며 2002년 이후 매년 동식물 천도재를 병행해 온 강릉 현덕사, 최근 새로운 장례의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천 은혜사 등은 환경친화적 행사를 개최하는 곳으로 소개했다.

이 밖에도 알뜰환경지킴이 모임과 전통생태 모니터링 모임, 자연상태 답사 모임 등이 꾸려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길상사와 유치원에서부터 생명존중과 자연사랑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광주 선덕사 역시 환경교육의 모범사찰로 수록됐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 스님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전국 50여개의 사찰 현장을 돌아보며 자료를 준비해왔다"며 "난개발에 대항해 수평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사찰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각 사찰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푸른사찰사례집은 불교환경연대 홈페이지(www.budhaeco.org)에서 볼 수 있다. (02)720-1654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총립대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12월 24~28일 원서접수

입시철을 맞아 불교 총립대학들이 12월 24~28일 일제히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개교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와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는 우수 신입생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가' '나' 군으로 나눠 불교학부, 경영학부 등에서 1816명을 선발한다.

경주캠퍼스는 '가', '다' 군으로 나눠 신입생을 모집하며, 불교아동학과 등에서 953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서울·경주캠퍼스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02)2260-3114 www.dongguk.edu

중앙승가대는 정시모집 '나' 군으로 모집하며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에서 각각 21명씩 84명을 일반전형으로, 재외 국민 등 특별전형으로 2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수능성적과 상관없이 고교내신 성적 40%와 면접고사 60%로 선발하며, 원서는 대학 교학처에서 우편과 현장 접

수한다. (031)980-7713-6 www.sangha.ac.kr

전태종립 금강대는 '나' '다' 군으로 불교·복지학부에 불교학 전공과 사회복지학 전공, 통상·행정학부에 통상통역(영어 중어 일어) 전공과 행정학 전공(2006학년도 신설) 등 2개 학부 4개 전공에서 총 122명을 선발한다.

금강대는 우수한 장학제도와 소수 정예 엘리트교육으로 최근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금강대는 2006학년도부터 행정학부에 통상통역전공과 행정학전공을 신설해 고위 공무원양성 전문 교육에 박차를 가한다. (041)731-3050 www.ggu.ac.kr

진각총립 위덕대는 '나' '다' 군으로 불교문화학부, 교육학부 등에서 총 311명을 선발한다. 영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중등 특수교육전공 관련 학과 개설인가를 받은 위덕대는 올해 정시모집부터 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위덕대는 중등특수교육전공 관련학과를 신설해 사회복지특성과 대학으로 특성화 된다. (055)760-1063-5 www.uu.ac.kr

조용수 기자

창작창불동요 21번째 앨범

좋은 벗 풍경소리(총재 지현, 이하 풍경소리)가 스물한번째 창작 찬불동요 앨범을 발표했다. 이 앨범에는 '하얀 연꽃' '별 따러' 등 10곡의 창작 찬불동요와 '씨앗(Seed)' 등 2곡의 영어 찬불동요가 실렸다.

강지연 기자

안양운불련 “불자조 편성하라” 단식

기독교교 88년 허용...종교편향 의혹

운불련 안양지역회(이하 안양운불련)가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불교 후무조 편성을 요청했으나 안양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반해 기독교 후무조는 1988년 안양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미 종교활동은 물론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안양운불련은 지난 1월 가, 나, 다 3개조로 운행되고 있는 안양시 개인택시의 3부제 대신 목·일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불교조 편성 인가신청을 안양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교통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개인택시 사업자의 민원이 우

려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안양시청 교통행정과는 기독교조인 '하' 조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10개월여를 끌고 있다.

강동수 안양운불련 회장은 "불교 후무조가 운행하더라도 교통수요에 큰 영향이 없는데도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종교편향 처사"라며 11월 29일 단식에 돌입했다. 안양운불련 지도부도 12월 2일 "불교 후무조 인가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박병영 기자

지율 스님 어디 계십니까?

신장기능 정지, 위급상황 올 수도...행방 수소문

천성산 환경조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율 스님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율 스님은 최근까지 여주 신특사에서 머물다 12월 8일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다.

8일 신특사에서 지율 스님을 만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의사 진료결과 신장 기능이 정지되는 등 지율 스님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급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수경 스님은 또 "지율 스님은 지난 몇 년간 활동을 해오면서 전

문성과 종교적 순수성을 동시에 갖게 됐다"며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지율 스님의 생명사랑 활동들을 포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경 스님은 "지율 스님이 건강회복을 위해 마음을 다시 돌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경 스님과 함께 지율 스님을 만난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도 "지난 2월 100일 단식 때보다 스님의 상태가 더 나빠 보였다"며 "밤마다 서영 스님이 지율 스님 곁을 지켰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율 스님의 동생 조경자씨도

"100일 단식 이후 소화기관은 물론 몸의 여러 곳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을 최근까지 수행했던 한 측근은 "지율 스님은 당선이 죽어서라도 천성산의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몸을 던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환경조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9일 현재 조계종과 경찰당국은 지율 스님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유철주 기자

“공개사와 안하면 공동조사 남은 일정 거부”

천성산 대책위, 공식 요청

정부와 천성산대책위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11월 말 '환경조사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청와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언과 관련 천성산 대책위가 이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공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천성산 환경조사

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천성산 환경조사가 참여하고 있는 6명의 전문위원과 '천성산을 위한 시민중고단체 연석회의'는 12월 6일 부산대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천성산 대책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12월 13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청한 상황이다.

천성산 대책의 서재철 간사는 "천성산 환경조사위원회 전체회의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와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남기명 토목처장은 "공개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더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

지정문화재 해제 보류

화재로 훼손된 김재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유형문화재 181호)의 문화재 지정해제가 보류됐다. (555호 3면 참조)

전라북도는 12월 7일 문화재위원회 열고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이 문화재지치는 사실했지만, 복원 이전까지도 지정 문화재 해제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조계종과 흥복사는 복원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박익순 기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국무총리상 수상

조계종자원봉사단은 450여명이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12월 7일 열린 '제17회 전국 자원봉사자대회'에서 범국민적 자원봉사 정신의 기풍을 조성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조계종자원봉사단은 450여명이 꾸준히 활동하며 불교계의 대표적인 자원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한 단체로 불교계 봉사단체의 선두그룹 중 하나다.

김강진 기자

불교 플래시애니메이션

금상에 '관세음보살과 ...'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 정보화사업팀과 기획실 주최로 12월 8일 '제2회 불교플래시애니메이션'에서 서영삼 씨의 '관세음보살과 심홍각 이야기'가 금상을 차지했다. 대상은 선정되지 않았다.

대상에는 배민행·유기창·문상미 '불심의 삼화사', 김종현 '심우도', 우수상에는 임재규 '정수구빙녀', 이태호 '신비한 내소사 법당', 신경영 '어미수달과 깨달음', 홍수현 '괘불의 교훈', 유은정 '설화의 고향 봉정사' 등 총 여덟 작품이 선정됐다.

이은비 기자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중지 가져분 신청

조계종이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조계종은 12월 5일 통영 옹화사(주지 선곡)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통해 공사를 막으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유철주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서울시와 자원봉사기관 협약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2월 9일 서울시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기관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는 서울시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각 자원봉사센터들에게 서울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정보제공·상해보험 가입 등의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강진 기자

서용 대중사 2주기 추모재 및 탑비 제막식

큰스님께서 좌탈 열반 하신지 어언 2주기가 되었습니다. 명당수에 나투신 영롱한 사리가 큰스님을 더욱 크게 생각하게 합니다. 2주기에 즈음하여 부도와 비를 함께 봉안하고자 하오니 문도스님들은 물론, 사부대중께서 다함께 동참하시어 큰스님의 위덕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길 앙망하나이다.

- ◆ 일 시 : 불기 2549년 12월 20일(음, 11월 19일) 오전 10시
- ◆ 장 소 : 백양사 대웅전, 부도전
- ◆ 문의전화 : 061)392-7502 / 홈페이지 www.baekyangsa.org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지종 주지 두백 명공 합장